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주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전남 휴일 날씨
12(土) 구름 조금 6/10℃
13(日) 구름 많음 1/8℃
단기 4342년 (음력 10월 26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47호 1판 2009년 12월 12일 토요일

조선대 정이사 박철웅씨 딸·손자 포함

사분위 8명 통보… 교직원·학생들 강력 반발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옛 경영진(종전이사) 측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해 조선대 교직원과 학생 등 구성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1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전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강현욱 전 전북도지사·남궁근 서울시립대 교수·강창원 변호사·이원구 전 광주보훈병원장·김용억 전 광주시의원·김택민 고려대 교수·故 박철웅씨와 종전이사 정애리시씨의 장녀 박성숙씨 등 7명을 정이사로, 정애리시씨 손자 박영석 변호사를 예비이사로 뽑는 등 정이사 총정원 9명 중 8명을 선임했다.

사분위는 정애리시·박성섭씨 등 종전이사 측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정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달에는 마감일(11월16일)까지 추천치 않을 경우, 사분위와 교과부가 직접 정이사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정씨 측은 마감일까지 후보 추천을 하지 않다가 10일 사분위 전체회의 직전에 후보를 추천했으며, 사분위는 이를 받아들여 박성숙씨를 정이사로 선임했다. 또 정씨 손자 박영석 변호사를 예비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조선대는 사분위와 교과부가 행정 절차나 객관성을 완전히 잃은 채 비리로 퇴출된 종전이사 측이 경영권을 차지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정이사 선임시 대학총장이나 총동창회장이 완전히 배제돼 조선대의 자율권을 약화시켜 종전이사 측의 복귀를 도우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정이사 선임은 총정원(9명)을 전원 뽑거나 총정원의 25%를 개방형 이사로 선임해야 하지만 사분위와 교과부는 이마저 무시한 채 정이사 7명, 예비이사 1명 등 8명을 선임했다.

실제 올 초 영남지역 최대 사립대인 영남대의 경우, 정이사 선임시 총정원이 동시에 선임됐을 뿐만 아니라 대학 현 집행부 수장인 총장과 이공대 총장까지 정이사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민주적 정이사 쟁취를 위한 범조선비상대책위'는 11일 대학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이사 7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총장과 총동창회장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정이사 명단

강현욱	前 전북도지사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
김용억	전 광주시의원
김택민	고려대 교수
강창원	변호사
이원구	前광주보훈병원장
박성숙	故박철웅씨 장녀
박영석	故박철웅씨 손자

신안 15년만에 서울대 합격생

사교육의 청정지역인 신안군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나온 여학생이 처음으로 서울대에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다.

주인공은 2010학년도 서울대 인문계열 수시모집에 합격한 신안군 도초중·고교 문가영(18·사진)양. 신안군에서 유학파가 아닌 토종 중·고교 출신이 서울대에 합격한 것은 문양이 처음이다.

이 학교 김석호 교장은 "15년 전에 안좌중 출신으로 과학고에 입학하고 다시 안좌종고로 전학 온 남학생이 서울대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한 것이 그동안 전부였다"고 말했다.

전교생 101명에 올해 수능을 본 3학년 학생은 단 19명에 그치는 등 지난 1999년부터 중학교와 합쳐진 도초고도 개교 31년 만에 최고의 경사를 맞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선거철 줄잇는 출판기념회… 정치인들의 셈법은?

홍보·자금 확보·勢 과시 '다중 포석'

출판 기념회가 국회의원·시장·지사 등 공직 선거 입후보자들의 통과의례로 굳어가고 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올 연말에도 어김없이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자서전을 내고 지인들을 불러모아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다.

문인들이 책을 내고 지인들과 밥이나 먹는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많게는 수천 명이 모이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원고 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야 할 정도로 책 내용이나 분량 또한 상당하다.

요약 하자면, 선거운동으로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정치인이 돈과 시간과 인맥을 총동원해 출판기념회에 '올인' 하고 있다는 얘기다. 요즘엔 "출판기념회 한다"가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일 정도다. 왜 그럴까?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최고의 홍보 이벤트=출판기념회는 현행 선거법에서 유일하게 '사전 선거운동'으로 허용하는 행사다. 때문에 입후보 전에 자신의 과정, 비전 등을 담고 있는 자서전을 나눠줌으로써 출정을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미 알려진 현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보다는 정치 초년생이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다져둔 조직을 점검하고, 세를 과시하는 것은 덤이다.

◇밑지지 않는 장사=비용은 광역단체장에 뜻을 둔 경우라면 기본으로 6천여만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필료 등을 포함한 출판비와 행사장 대관료, 무대 연출비, 초청장 등 각종 인쇄비 등에 드는 돈이다.

대부분 자비 출판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드물게 있으나 대부분의 출판사는 사실상 선거용 책자인 자서전을 찍는데 돈을 들이지 않는다.

어떤 식이든 밑지는 장사는 아니다는 게 정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가령 책값이 1만 원인 자서전 1만 권을 찍어내 모두 팔린다면 1억 원이 된다. 하지만, 출판기념회에 오는 사람들이 딱 책값만 두고 가지는 않는다. 후보자와 인연 때문에라도 10권 값을 내고 1권만 가져간다거나 별도의 후원금을 봉투에 넣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최근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의 출판기념회를 찾은 인사들은 평균 5천여 명. 1인당 2권씩만 샀다고 쳐도 1만 권이 거뜬히 팔렸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광주에서 출판기획사를 운영하는 C씨는 "광역단체장을 염두에 둘 경우 적어도 1만 권은 출간하는데, 이 정도면 6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논란 등 역풍도=모두가 흥행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곤욕을 치른 사례도 있다. D의원은 자서전을 측근이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가 적발돼 곤욕을 치렀다. E의원은 자서전의 일부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가 혼이 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사리 손도 한몫 11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 마련된 구세군 자선냄비에 한 어린이가 성금을 넣고 있다. 자선냄비는 충장로 일대 3곳에 설치돼 있으며, 성금모금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도심서 기른 친환경 쌀 ▶3면 밥상물가와 날씨의 관계 ▶4면 제철 만난 굴 요리 ▶5면 Books ▶8·9면 전라도 맛집 ▶13면 기아 황금장갑 4명 ▶14면